

일반
논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서 『반일종족주의』까지*

한국에서 ‘신우파 경제학’의 퇴행적 진화

안현효 _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논문요약

이 글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과 『반일종족주의』에서 발견되는 한국에서의 ‘신우파 경제학’의 퇴행적 진화 과정을 분석한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좌파 민족주의 경제학을 비판하기 위해 보수주의적 국가주의와 반동적 낭만주의 이데올로기를 결합한다. 한편 『반일종족주의』는 좌파민족주의를 종족주의로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데올로기는 천황제종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두 저술은 ‘신우파 경제학’이 다양한 이론적 기반을 포섭하여 수행한 초기의 좌파 민족주의 비판에서 민족주의를 종족주의적으로 해석하여 접근하는 퇴행적 진화과정을 보여준다. 이 글은 이러한 퇴행의 원인으로서 ‘신우파 경제학’이 사실과 실증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중진자본주의론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기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지목한다. 퇴행적 민족주의로 진보적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자가당착 때문에 ‘신우파 경제학’의 이론적 기획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 **주요어:** 민족주의, 종족주의, 신우파 경제학, 사회구성체 논쟁, 국가주의

* 이 논문은 2018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이다.

1. 서론

『반일종족주의』(이영훈 외 2019)라는 책이 2019년 발간되자마자 2개월 만에 10만 부가 인쇄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전사(前史)가 있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되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강성현 2019). 이 책은 학술적인 논제들을 다루고 있고 통계들도 제시하지만 “책이 놓인 맥락과 배경”(강성현 2019, 142)을 고려하면 이 저술의 상업적 성공이 단순히 하나의 견해를 밝히는 학술저서로서 성공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등장한 극우파 현상과 관련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필자는 이전에 동일한 저자들이 같이 공저자로 참여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영훈·박지향 외 2006)에 대해 『반일종족주의』는 앞의 저술에 비해서 퇴행적 진화 과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퇴행은 상징적이다. 왜냐하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 등장한 2006년의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기 시도한 친일 청산(2004년 3월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제정)의 시도에 대한 친일파의 정치적 도전으로서의 ‘뉴라이트’(신우파)의 구성이라는 맥락 속에 있는 반면, 『반일종족주의』가 등장한 2019년은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는 태극기 부대의 정치적 도전의 맥락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우파의 혁신과 결집을 시도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극우의 소수화 경향 속에서 등장했다.

이 글은 두 저술을 ‘신우파 경제학’¹⁾의 중요한 이론적 성과로 보고 두 저

술을 지식사회학적으로 해석하여 두 저술로부터 신우파 경제학의 진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가지의 연구 질문을 다룬다.

첫째는 두 저술에서 발견되는 신우파 경제학의 진화 방향이 무엇이나는 점이고, 둘째는 신우파 경제학이 이렇게 진화하는 원인이 무엇이나는 점이다. 우리는 이 분석을 통해 다음을 주장한다.

첫째는 신우파 경제학이 퇴행적 진화를 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러한 퇴행적 진화는 신우파 경제학이 기반한 이데올로기의 시대착오성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2절과 3절은 두 저서를 해석하며, 4절은 이러한 두 저서에서 발견되는 신우파 경제학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으로서 사회구성체 논쟁을 성찰하고자 한다.

2. 보수적 국가주의와 반동적 낭만주의의 결합

『반일종족주의』를 읽고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다시 읽어보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 상당히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해방 이후 진보적 정치운동(좌파 민족주의에 기반

-
- 1) 이 논문에서 사용한 신우파 경제학(New Right Economics)이란 뉴라이트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중진자본주의론을 의미한다. 과연 중진자본주의론이 뉴라이트의 이론적 기초인가, 중진자본주의가 경제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가 등은 '신우파 경제학'이라는 명명하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뉴라이트와 소위 '사회구성체 논쟁'을 결합시키려는 본 논문의 논지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명명이라고 판단하여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한다.

을 둔)의 해방 정국의 인식을 반영하는 『해방전후사의 인식』(송건호 외 2007)을 비판하고자 쓰여진 것이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1980년대에 처음 발간되어 1989년까지 6권까지 발간된 민족주의적 현대사 이해의 고전과 같은 책이었다. 이 책은 1980년대의 대학 학생운동권의 의식화 교육의 교재로서 활용된 스테디셀러였다. 그러므로 좌파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새로운 우파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려는 신우파적 관점에서는 이 고전적 저서를 비판하는 것은 핵심적 이론, 정치적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좌파 민족주의를 비판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시의 사상사적 맥락이 있다. 해방 전후의 역사(한국 현대사)를 민족주의로 해석하는 입장은 진보적 이론 내에서는 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20세기 초반의 역사적, 이념적 지형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즉 20세기 초반의 강력한 이념적 도전자는 마르크스주의 였는데, 식민지에서 마르크스주의는 민족주의와 결합하였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식민지 해방 운동에서 핵심적인 공유 고리로서 작용했기 때문이다(Anderson 2010). 그렇지만 1980년대 초반의 운동권 내에서의 이념 논쟁 속에서 민족주의적 진보이론(이른바 NL, National Liberation 파)에 대립하는 새로운 좌파 이론이 등장했고 이 논쟁이 경제학계에서 검토된 것이 이른바 ‘사회구성체 논쟁’이다. ‘사회구성체 논쟁’은 자생적 마르크스주의의 등장 속에서 반 NL적 성향(이른바 PD, People’s Democracy 파)의 등장을 보여준다. 하지만 마르크스를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주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자체는 매우 큰 논쟁으로 이미 식민지 시대부터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반봉건성을 강조하는 견해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강조하는 견해의 대립으로 발전된 상

태였다. 그런데 1980년대의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NL과 PD의 논쟁, 이어 받은 진보적 경제학계의 ‘사회구성체 논쟁’은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짧은 봄날의 유행에 그쳤다. 이때 국내에는 민족주의 비판이 등장하는데, 마르크스주의조차도 민족주의로 간주하는 포스트모던 민족주의 비판이 나타난 것이다. 임지현(1999)은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민족주의적 경향과 비판적 경향의 대립을 무시하고, 대표적 변혁이론인 마르크스주의조차 민족주의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하였다.

1990년대의 민족주의 비판은 대문자 역사(History)를 비판하는 탈근대적 역사학(임지현·이성시 편 2004)으로 진전된다. 소장파 서양사, 국사, 사회학, 경제학 전공자들의 근대적 사유 자체의 발본적 성찰에서 시작한 민족주의 비판은 역설적으로 근대의식으로서의 민족주의의 지배적 요소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는 큰 담화(discourse)의 붕괴 속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생활 담론의 득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민족주의 비판이라는 이론 진영의 새로운 맥락을 신우파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결과였다. 안현효(2010)는 이 이데올로기적 동맹을 보수적 국가주의(이영훈 등)와 반동적 낭만주의(박지향 등)의 연합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이영훈 등은 좌파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나라 세우기’를 내세운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시작과 기원을 어디에 두고 볼 것인가의 논쟁점과 이어진다. 1945년의 해방을 기점으로 할 것이냐(광복절), 아니면 1948년의 남한 정부 수립(이른바 건국절)을 기점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다. 이영훈은 일제 강점기의 임시정부를 기원으로 하는 현행 헌법 체제의 기원 서술을 전형적인 민족해방파의 논리로 간주하고 이에 대항하여 1948년의 남한의 정부 수립을 현대사의 시작으로 보려고 했다. 이른바 건국절 논쟁이 그것이다. 이영훈은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1948년을 건국년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나라세우기를 강조한 것인데, 이 서술에서 결국 민족주의에 대결하기 위해 국가주의(=보수적 국가주의)를 내세운 셈이 되고 말았다.²⁾

국가는 이해관계와 사상을 달리하는 인간 집단이, 서로 다투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넓은 범위에서 하나의 평화로운 질서로 통합되는 기제로서의 정치이다. 국가는 문명의 상징이다. 국가가 없거나 해체된 상태를 야만이라 한다. 야만의 극복으로서 문명은 국가와 더불어 성립한다(이영훈·박지향 2006 1권, 56).

여기서 이영훈의 ‘국가’는 근대민족국가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해방, 점령, 분단, 건국, 전쟁, 복구, 한미동맹, 4·19까지 가파르게 전개된 해방 전후사의 후반을 나라세우기(state building)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이영훈·박지향 2006 1권, 60).

2) 여기서 민족(nation)과 국가(state)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의 쟁점이 있다. 필자는 가라타니 고진(2005; 2009)의 정의를 따라 민족과 국가를 구분하며 양자의 결합 속에서 현대 국민국가가 성립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 또는 ‘나라 세위기’를 언급하면서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이 무조건 ‘나라’라는 규정은 그 나라의 정체(정치체제)에 대한 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다. 한편 박지향은 민족주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한다는 점에서 이영훈과 구별된다. 박지향은 민족주의와 좌파를 동렬에 두고 ‘배타적이고 폭력적 이념’이라고 비판하며 탈이념주의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거대담론을 비판하면서 탈근대주의적 차원을 보여주는 박지향의 민족주의 비판은 민족주의 자체를 악으로 보고 거대 담론을 부정하며 역사적 지향성을 부인함으로써 탈근대적 낭만주의적 요소(= 반동적 낭만주의)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이 양자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영훈의 반민족주의 = 국가주의와 박지향의 반민족주의 =반국가주의는 서로 조응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서술을 통해 양자의 모순은 봉합되고 화해된다.

…… 우리는 그런 나라 만들기 과정을 단 수십 년 만에 치러야 했고 그 과정에서 …… 일어난 시행착오에 현대의 잣대를 들어대고 비난하기 전에 그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이영훈, 박지향 편 2006 1권, 15)

이는 양자의 잠재적 갈등이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 하에서 봉합된 것이다. 하지만 이 봉합은 다양한 반(反)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합시키는 것이었고, 당시의 정치 정세 속에서 신우파의 정치적 승리로 귀결했다.

3. 천황제 종족주의의 거울이미지

13년 이후 등장한 『반일종족주의』는 신우파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다. 13년 전에 근대의식으로서의 민족주의를 비판했던 낭만주의적 탈근대주의와의 동맹은 깨지고 민족주의를 고전 고대적 종족주의(tribalism)로 간주하는 국가주의적 시각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물론 2006년에도 이 영훈은 민족주의를 ‘고대인의 집단주술과도 같은 정신세계’라 하여 종족주의로 이해하는 단초를 보여준다.³⁾

이러한 단초는 『반일종족주의』에서 완전히 득세하여 민족주의의 근대적 요소를 부정하는 논리로 변화했다. 남기정(2019)은 민족주의를 종족주의로 간주하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인식의 전환은 이영훈의 민족주의 비판이 일본의 우파와 동조하는 국제화된 극우의 정치 기획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이 책은 일본의 ‘천황제 종족주의’에 기초한 일본인의 ‘협한 종족주의’의 거울상인 ‘반일 종족주의’를 한국인 스스로 체화시킨 ‘친일 종족주의’의 책이다(남기정 2019, 90).

여기서 ‘천황제 종족주의’라는 표현은 이영훈의 ‘반일종족주의’에 대한

3) 이영훈은 최남선의 정신적 백두산을 언급하면서 이는 결국 국토신체론으로서의 민족주의이고, 고대인의 집단주술이라고 비판한다.

반어법적 레토릭이다. 이러한 천황제 종족주의의 본질은 무엇일까? 전후 일본의 국가주의는 상징천황제를 통해 재구성된다. 천황제는 패전 후 절대천황제에서 상징천황제로 바뀌면서 자민족중심주의와 배타적 배외주의의 성격이 농후한 단일민족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⁴⁾

결국 전후 일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재활용됨으로써 일본 우파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 장치가 되었다. 하지만 『반일종족주의』는 민족주의를 천황제에서 이해하는 민족주의, 즉 종족주의의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그 결과 ‘거짓말 하는 나라’, ‘거짓말 하는 국민’, ‘거짓말의 재판’의 나라 등 일본 극우파가 쏟아내는 혐한 발언들을 여과 없이 『반일종족주의』에 담아 넣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좌파 민족주의에 대해 비판했던 딱 지인 ‘극단적 자학사관’(전강수 2020, 39)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나라 세우기’라면서 보여주었던 보수적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타락한 버전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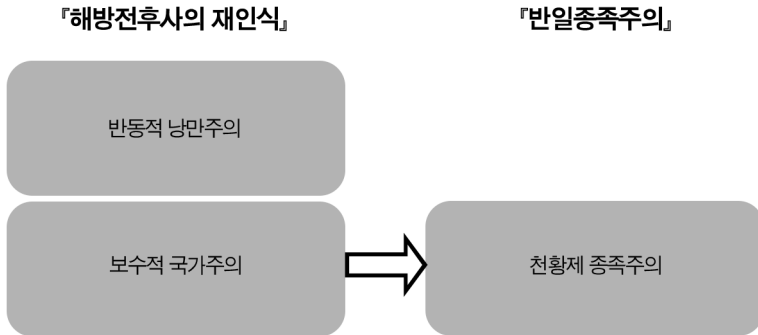
민족, 인종, 종족이라는 국어는 각각 nation, ethnic, tribe에 대응하는 것이다. 여기서 민족은 인종 및 종족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다종족을 통합하는 국민국가의 통합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나인호 2011; Renan

4) 패전 전의 천황제는 일본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로서 다민족통합과 동화의 매개로 작동하였지만, 패전 후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일본국민의 재판 과정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다(박진우 2010, 84). 천황제와 관련하여 ‘국체’의 절대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고대부터 일관된 일본적 민주주의의 전통으로 상징천황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황국사관과 커다란 차이점이며 오히려 천황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합리화한다(박진우 2010, 103).

1882). 그럼에도 이영훈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종족주의(tribalism)라고 규정하여 한국 민족주의를 고대의 원시종교, 샤머니즘으로 환원시킨다. 전강수(2020, 58)는 이영훈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질문한다. 사실 이 책에서 반일종족주의에 대한 학술적 정의와 논의를 기대할 수는 없다(남기정 2019, 93). 따라서 학문적 접근은 텍스트 내에서 찾기보다는 텍스트 외부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들이 한국 민족주의의 핵심으로 삼는 것은 ‘국민적 현상으로서 배타적 반일 감정’을 일컫는다.

이 책은 초판 발행 후 4개월 만에 일본에서 번역·출간된다(李榮薰 編著 2019). 한국어판에서 다소 극우 일본인에게 거스를 수 있는 제9장, 16장, 19장의 3개의 장을 덜어내고 번역했다. 이는 이본 보수 우익 계열 인사에게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남기정 2019, 97). 남기정(2019, 98)은 결국 전후 맥락 속에서 검토한 “『반일 종족주의』는 한일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기획한 자작극”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문적 논쟁 이전의 유튜브 등을 이용한 인터넷 TV 또는 인터넷 카페의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극우 친일세력과 일본의 극우세력이 서로 연대하여 작용하고 있는 친일운동의 맥락이 있다(강성현 2019, 121). 또한 호시카 유지(2020)는 『반일종족주의』에서 다루는 세 문제,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는 일본 우파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한다. 즉 이영훈 등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언술을 학문적 연구의 포장 뒤에서 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일 극우파의 정치적 유착이 있다.

〈그림 1〉 신우파 경제학의 퇴행적 진화



〈그림 1〉에서 보여주는 것은 국가주의와 낭만주의의 혼종적 결합으로 구성된 좌파 민족주의 비판이 궁극적으로는 종족주의로 이해된 민족주의 비판으로 나아가면서 스스로 또 다른 종족주의적 민족주의로 쇠락하는 경로를 도식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수주의적 국가주의의 헤게모니하에서 탈근대적 반민족주의를 성공적(?)으로 통합시켰던 최초의 이론적 기획은 13년 만에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에 통합되는 협소한 아(亞)제국주의 이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4. 식민지반봉건사회론 대 식민지자본주의론

그렇다면 제기되는 질문은 이러한 이론적 퇴화(devolution)의 궤적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은 지식사회학적, 정치이

론적 배경과 맥락에서 접근한 것이지만, 여기서 제기하는 것은 안병직-이영훈으로 이어지는 이론적 계보의 기원이다.

현재의 모습은 반NL이지만, 원래 NL적 입장이었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진보 운동권의 주류는 NL, 즉 민족해방론이었고, 여기에 소수파로서 PD, 즉 민중민주주의론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반체제운동은 민족주의적인 것과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서로 대립하는 또는 서로 경쟁하는 두 정파가 등장함으로써 진보운동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확보해 가고 있었다.⁵⁾ 그러나 아래의 발리바르의 표현에서 보듯이 사회주의적 반체제운동은 운명적으로 민족주의적 반체제운동과 결합하고 있었다.

모든 역사적 마르크스주의들은 ... 그 국제주의적 형태 속에서도 넓은 의미의 민족주의(서양의 인종중심주의나 그 안티테제인 제3세계주의와 같은 확장된 민족주의)에 의해 침투되어 왔다(Balibar 2007, 428).

그러므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내의 반체제주의에서 서로 대립하거나 서로 중첩되는 등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민

5) 1980년 이전의 시기에는 운동권은 반 박정희 투쟁의 민주주의 운동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고, 해방 정국 기의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적 맥락은 박정희 체제를 지나면서 씨앗이 말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반 체제 운동의 역사 자체가 민주주의 운동 속에서만 극히 소수로 존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광주를 지나면서 민주화운동권은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급진화하여 1980년 중-후반의 사상사적 분화를 낳게 되었다.

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복잡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은 민족주의의 양면성, 즉 극우적 형태와 좌파적 형태가 크게 기인했다. 제3세계에서는 좌파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와 결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타났지만 민족해방이라는 민족주의적 과제가 달성된 이후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은 붕괴하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진화했다.⁶⁾

1980년대 우리나라의 반체제 운동권은 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박헌채의 『민족경제론』에서 찾았다. 『민족경제론』은 진보적 민족주의의 외피 속에서 사회주의적 사고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박헌채(1985b)는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1)”라는 논문에서 사회주의적 지향을 시사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도입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비판했던 것이다. 반면 박헌채와 대립하는 입장을 취한 이대근(1985)은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부쳐”라는 글에서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강조하되, 당시의 이론적 성과를 반영하고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를 주변부자본주의로 규정하였다. 이때 한국 사회의 특수성으로 “종속성”을 제시하였는데, “종속성”은 내재적으로 진행된 자본주의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바로 이 특수성에 대한 강조가 민족해방론(좌파 민족주의)의 이론적 기반인 식민지반봉건사회론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공통된

6) 이는 제2차 대전 이후 제3세계 독립과 더불어 서발턴(subaltern) 이론이 등장하는 정치적 배경이다.

특징이라는 점이다. 이때는 특수성이 식민지적 수탈이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발전을 방해하고 반식민지투쟁에 의해서 해방이 쟁취되어야 없어질 특수성이라는 점이 다르다.

원래 안병직의 입장은 이 맥락 속에서 식민지 조선을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보는 입장이었다. 1980년대의 사회구성체 논쟁의 부록 형식으로 식민지 사회성격 논쟁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안병직, 장시원 등은 식민지반봉건사회구성체론을 주장하였고 식민지반봉건 사회구성체론에서 지주제는 전자본주의적 생산관계하에서 근대적 상품경제에 포섭된 지주제로 인식된다. 반면 이진경, 김석민 등은 자본주의적인 반봉건제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때 토지조사사업을 본원적 축적으로 보았다. 박현채(1985a, 218)가 1918년 토지조사사업과 1924년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식민지 조선이 자본주의로 전화했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이진경, 김석민 등은 박현채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에 의해 외적으로 규정된 본국(일본) 자본주의의 이식형태로서 식민지자본주의 생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안병직 등은 식민지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부정했다(박현채, 조희연 편 1989).

그런데 1990년대부터 식민지의 근대화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바뀌어 식민지 근대화 논쟁이 시작됐다. 여기서 국사학계 등의 식민지 수탈론과 안병직 등의 식민지 근대화론이 서로 대립했다. 실제로는 안병직의 입장 전환은 1980년대 후반 안병직의 일본 유학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전강수 2020, 14). 이 시기 이후 안병직은 식민지 시절 자본주의가 발전하였으며(식민지 근대화론), 해방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은 바로 일제 강점기의 일제가 이식

한 자본주의에 기인하고, 박정희 개발 독재는 이러한 유산을 활용한 것이라는 개발독재 미화론으로 진화했다.⁷⁾

이러한 변화는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의 운명이다. 1980년대 당시 운동권 주류였던 NL파(주사파 또는 민족해방파)는 1980년대의 남한 자본주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의 자본주의 발전을 인정한다면 식민지반봉건사회로서의 남한 사회를 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러한 이론적 틀 내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인정하면 나카무라나 안병직의 증진자본주의론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후 증진자본주의론을 주창한 안병직 등은 추격 이론을 받아들여 주류경제학의 경제성장이론의 발전 경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선진국의 발전 과정을 겪는다는 선진화 명제를 제시하는 신우파 경제학으로 한국 경제를 재정립한다(이영훈 2013; 정승진 2017).⁸⁾

이렇게 볼 때 신우파 경제학이 “반민족주의”인가라는 점은 쟁점이다. 필자의 해석은 『반일 종족주의』에서 저자가 반일주의를 민족주의로 등치하고 민족주의를 종족주의로 폄훼한 후 민족주의를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 7) 안병직이 이끄는 낙성대연구소의 연구 성과의 일단은 김낙년(2006)을 참조. 식민지 조선의 경제성장을 이식근대론이라고 부른다. “1984년 「역사평론」에 실린 나카무라 사토루(1984)의 ‘증진자본주의론’을 봤다. 제3세계도 자립적 자본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동경대에 간 건 한국경제에 새 인식을 얻기 위해서다. (내가) 일본 체류 중 86년 한국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충격이었다. 이것이 내가 ‘증진자본주의론’을 수용한 이유 중 하나였다”(안병직·이영훈 2007).
- 8) 증진자본주의론의 역사적 기원은 “서유럽에서 출현한 근대문명이 일본을 경유해 조선에 이식되는” 이른바 이식근대론이다(이영훈 2016, 39). 이런 의미에서 안병직, 이영훈 류의 ‘신우파 경제학’은 역사의 재해석에 기초한다.

신우파 경제학은 “민족주의”적이다. 다만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서 드러나는 강한 국가주의가 친황제 종족주의라는 변종 민족주의로 쇠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반일 종족주의』에서 나타나는 극렬한 반 민족주의적 언사와 배치된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5. 다시 검토하는 민족주의

이 모든 논쟁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박현채의 민족주의에는 종족주의적 요소가 들어 있다. 박현채는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1989)에서 민족경제론의 일반이론화를 시도하면서 민족적 생활양식 개념을 도입하는데 여기서 민족적 생활양식이란,

“민족적 삶이 영위되고 있는 지역의 풍토, 기후, 그리고 자원의 부존상태에 의해 기초지워지면서 그것 위에 이루어지는 인종공동체 안에서의 누대에 걸친 인간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의 계승”(박현채 1989, 59).

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민족주의 이해는 박현채만의 특수한 것이 아니라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공통된 이해로 보인다.⁹⁾ 이러한 이해를 안병직은 공

9) 물론 박순성·김균(2001)에 의하면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은 민족적 민족주의라는 1단계와 마르크스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결합한 2단계 민족경제론으로 나뉜다. 그러나 확장된 민족경제론에서도 초기의 민족경제론의 요소가 없어지지 않는

유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후 안병직이 증진자본주의로 전환되고, 이영훈이 신우파 경제학을 재구성할 때 민족주의를 인종주의로 규정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종족주의로 이해하는 것보다 “19세기 말 민족국가 건설의 과제 속에서 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근대화의 한 형태로 보는 시각이 오히려 민족주의에 대한 주류적 해석이다.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민족주의, 자본주의, 국가주의의 결합(capitalist = nation = state: 자본주의적 민족국가)이다.

고진에게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즉 화폐에 의한 교환에 기초한 시민사회를 기원에 두고 있는데, 민족주의는 농업공동체의 호혜제도가 변화해서 등장한 것이고, 국가주의는 수탈과 재분배의 기제인 봉건국가가 해체되면서 재구성된 것이다(가라타니 고진 2005, 460).

이 세 요소는 같은 것이 아니고 그 기원이 다른데, 세 가지 다른 기원을 가진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됨으로써 오늘날의 우리 시대가 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자본주의 내부에서 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앤더슨(Anderson 1992)은 『상상의 공동체』에서 민족과 국가는 원래 이질적인데 서로 결합한 것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분한다. 가라타니 고진(2009)에 의하면 그 전에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국가와 자본의 ‘결혼’이 있었다고 한다. 이질적인 세 요소가 결합한 현대 사회 체제를 고려하면 현대 사회

 다는 점에서 필자의 해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체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각 요소의 봉건적 기원이 해체되고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결국 근대적 개념으로서 민족주의는 종족주의를 뛰어넘는 국민국가 단위의 민족 재구성이 필요하다. 제3세계에서는 이 특징이 근대화와 자주화라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근대적 민족주의의 입장에서는 일본식민화를 통해 자주화가 부정된다면 근대화(=이식근대화)만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민족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근대적 민족주의 개념에 의하면 이영훈이 NL적 민족주의를 종족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자신의 입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NL적 민족주의는 근대의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민족주의이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경우는 근대화, 자주화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일본제국주의를 전범으로 본다면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천황제 종족주의)를 수용하는 이영훈의 입장 역시 민족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신우파 경제학은 “일본에 의한 근대를 민족주의 정통으로 두고, 일본에 대한 자주를 반일종족주의로 배격”(남기정 2019, 110)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은 여전히 국가주의에 있다. 이영훈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을 통해 식민지 사회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여 저항적 민족주의를 비판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회주의적 진보이론을 파시즘, 전체주의와 같은 것으로 뭉뚱그려 사회주의도 비판한다. 그리하여 이영훈은 반사회주의, 민족주의 비판을 거쳐 국가주의로 귀결하였다. 그러나 『종족주의비판』에서는 민족주의를 종족주의로 간주하고 비판하는 와중에 정작 자신은 천황제

종족주의라는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로 귀의하고 만다.

6. 결론

우리는 이 글에서 『종족주의비판』을 지식사회학적으로 독해하기 위해 13년 전에 발간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호출하여 양 저서를 비교하면서 탈근대주의와 국가주의를 결합시키려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의 담대한 기획이 『종족주의비판』에서는 오히려 ‘천황제 종족주의’로의 퇴행적 진화 과정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러한 퇴행적 진화 과정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으로 다시 20여 년 전의 사회구성체 논쟁을 소환했다. 이 시기 신우파 경제학을 주도한 안병직 등은 식민지반봉건사회론에서 식민지근대화론으로 전환하고, 이 관점을 한국 현대사에 적용시켜 중진자본주의론을 제기했다.

중진자본주의론은 식민지근대화론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을 해방 이후의 전개 과정에 적용한 것인데,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의 우경화는 일본제국주의의 민족주의에 투항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투항은 현대 사회가 각기 다른 기원을 가진 민족, 국가, 자본의 삼위일체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데 기인하며, 따라서 민족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족주의에는 종

족주의적 요소가 있으나 현대의 민족주의는 그 기원을 재구성하여 종족주의에서 탈피한다. 즉 민족주의는 근대 자본주의(=근대화)와 현대 국가(=복지국가)가 결합하여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상상적으로 의제화하여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물론 민족주의는 그 퇴행적 형태에서는 종족주의로 퇴화할 수 있다. 우리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서 『종족주의비판』의 비판적 독해를 통해 이러한 퇴화를 확인한다. 그러므로 민족주의 비판은 자본주의 민족국가의 총체적 비판 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며, 천황제 종족주의라는 퇴행적 국가주의적 접근에서 비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XXXX~~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 2005. 『트랜스크리티프-칸트에서 마르크스로』, 송태욱 역, 한길사.
 _____. 2009. 『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b.
- 강성현. 2019. “한국 역사수정주의의 현실과 논리: ‘반일 종족주의 현상’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120-143
- 김낙년. 2006. 『한국의 경제 성장, 1910-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고양: 역사비평사.
- 남기정. 2019. “정치 기획으로서 반일 종족주의: 유명 잡기에 도전함”. 『동아문화』 57. 87-117
- 박순성·김군. 2001. “정치경제학자 박현채와 민족경제론: 한국경제학사의 관점에서”. 『동향과 전망』 48호. 박영륜출판사
- 박진우. 2010. “전후 일본의 단일민족론과 상징천황제”. 『일본사상』 18. 81-108.

- 박현재. 1985a. “해방 후 정치사회운동을 보는 시각”. 『해방전후사의 인식』 제3권. 한길사.
- _____. 1985b.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대한 연구(I)”. 『창작과 비평』 57호.
- _____. 1989.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 돌베개.
- 박현재·조희연 편. 1989. 『한국사회구성체 논쟁(I)』. 죽산.
- 송건호 외. 2007.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 안병직·이영훈. 2007.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 기파랑.
- 안현효. 2010.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대한 징후적 독해”. 『경제와사회』. 199-232.
- 이대근. 1985.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부쳐”. 『창작과비평』 57호.
- 이영훈. 2013. 『대한민국 역사: 나라 만들기 발자취 1945-1987』. 기파랑.
- _____. 2016. 『한국경제사 II: 근대의 이식과 전통의 탈바꿈』. 일조각.
- 이영훈·박지향 편. 2006.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2. 책세상.
- 이영훈 외. 2019. 『반일종족주의』. 미래사.
- 임지현.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 임지현·이성시 편. 2004. 『국사를 넘어서』. 후마니타스.
- 전강수. 2020. 『반일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한겨레출판.
- 정승진. 2017. “뉴-라이트의 이론과 사상: 안병직·이영훈의 최근 성과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106, 325-350.
- 호시카 유지. 2020. 『신친일파: 반일 종족주의의 거짓을 파헤친다』. 봄이아트북스.
- Anderson, B. 1992. *Imagined Communities*, Verso. 윤형숙 역. 1992. 『상상의 공동체』. 다담출판
- Anderson, K. 2020. *Marx at the Margins*, 정구현, 정성진 역. 2020. 『마르크스의 주변부 연구』. 한울엠플러스.
- Balibar, E. 2007. *La crinte des masses: Politique et philoshphie avant et apres Marx*. 최원, 서관모 역. 2007. 『대중들의 공포』. 도서출판비.
- Renan, E. 2002. *Qu'est-Ce Qu'une Nation?* 민족이란 무엇인가 신형선 역. 책세상.
- 李榮薰 編著. 2019. 『反日種族主義--日韓危機の根源』. 文芸春秋社, 2019. 11. 14.

From Reinterpretation of the Contemporary History of Liberation to Anti-Japan Tribalism

The Devolution of New-Right Economics in South Korea

Ahn, Hyeon Hyo

Daegu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devolutionary development of new-right economic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readings of *Reinterpretation of the Contemporary History of Liberation* and *Anti-Japan Tribalism*. *Reinterpretation of the Contemporary History of Liberation* attempts to combine conservative statism and reactionary romanticism in order to criticize left-wing nationalism. On the other hand, *Anti-Japan Tribalism* interprets left-wing nationalism as a kind of tribalism, while, at the same time, its own ideology fails to move away from to the imperialistic tribalism of Japanese right-wing nationalism. Both works reveal the devolutionary process of new-right economics from a grand project employing various theories to criticize left-wing nationalism to a regressive approach of interpreting nationalism as tribalism. This study highlights the failure of new-right economics to move beyond the middle capitalism theory, which was its ideological origin despite emphasizing facts and empirical evidence as the cause behind such devolution. The self-contradictory criticism of progressive nationalism as being regressive made it inevitable for the new-right economics' theoretical project to collapse.

■ **Keywords:** Nationalism, Tribalism, New-right economics, Social formation debate, Statism

투고: 2021.5.26. 심사: 2021.10.12. 확정: 2021.11.5.